

AJ 기반 주얼리 큐레이션 서비스

20251441 심희원





목 차

1 추진 배경

2 현황 및 문제점

3 핵심서비스

4 기대효과



주진 배경

최근 주얼리 스타일링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나, 입문자 입장에서 정보를 얻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특히 가장 답답했던 점은 브랜드 간의 차이 였습니다. 초보자의 눈에는 비슷해 보이는 디자인인데, "도대체 이 브랜드는 저 브랜드와 무엇이 다르고, 왜 가격 차이가 나는지" 명쾌하게 알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명품 브랜드와 일반 브랜드가 철저히 분리되어 있어 나의 예산 안에서 이 둘을 동시에 놓고 비교해보고 싶은 니즈를 충족시켜 주는 서비스가 없었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

명품 정보는 백화점이나 공식 홈페이지에, 일반 브랜드 정보는 종합 쇼핑몰이나 오픈마켓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용자는 자신의 예산 범위(예: 100~300만 원) 내에서 이 두 카테고리의 제품을 동시에 비교·검색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며, 여러 사이트를 오가며 시간을 허비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온라인 쇼핑몰은 단순히 상품 이미지와 가격 정보만을 나열하는 방식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의 문제점은 주얼리 입문자의 시선에서는 명품과 일반의 차이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브랜드 고유의 역사(Heritage), 세공 기술, 소재의 차이 등 '가치(Value)'에 대한 설명이 부재하여, 사용자는 확신 없는 구매를 하거나 선택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 플랫폼의 '랭킹'은 단순 판매량 순위일 뿐, 사용자의 상황(TPO)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핵심서비스

실시간 인기도 랭킹 (요즘 뭐가 잘 나가?)

- 수많은 주얼리 중에서 뭘 살지 고민될 때, 가장 많이 팔린 순서대로 1등부터 쭉 보여줍니다. 명품관(비싼 거)과 일반관(데일리)을 따로 보여줘서 내 예산에 맞춰 편하게 구경할 수 있습니다.

2. 24시간 대기 중인 'AI 점원' (나한테 딱 맞는 거 찾아줘)

- 매장 직원에게 물어보듯이 "300만 원으로 여자친구 선물 추천해줘"라고 입력하면, AI가 우리 가게 재고를 확인해서 딱 맞는 물건을 골라줍니다. 단순히 검색 결과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브랜드는 역사가 깊어서 선물용으로 좋아요"라며 친절하게 설명까지 해줍니다.

3. 콕 집어 찾아주는 '스마트 검색'

- 복잡한 필터 없이 '반지', '샤넬' 같은 단어만 입력하면 원하는 물건만 순식간에 추려줍니다.

기대효과

1. 주얼리 공부할 필요 없어요

- 고객들은 보통 주얼리 브랜드나 시세를 잘 몰라서 검색하느라 시간을 많이 씁니다. 이 앱은 랭킹으로 유행을 알려주고, AI가 설명을 대신 해주니까 고민하는 시간이 확 줄어듭니다.

2. 잠들지 않는 베테랑 직원 채용

- 새벽 2시에 고객이 들어와도 AI가 친절하게 상담해줍니다. 사장님의 자리를 비워도, AI가 손님 취향에 맞춰 물건을 추천해주니 판매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